

작품개요

이 곡은 작곡자가 37세 때인 1958년 7월 27일 작곡을 시작하여 8월 11일까지 15일 만에 완성하여 8월 14일 ~15일 대한극장에서 열린 정부수립 10주년 <경축 대 합동음악회>에서 시립서울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의 연합 오케스트라와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곡의 제1악장은 '여명(黎明)'으로 조국해방(1945. 8·15)과 정부수립(1948. 8·15)을 기념하는 여명의 노래이다. 이 제1악장의 제1주제는 1·4 후퇴 직전 공습하의 서울 청파동에서 숨이불을 뒤집어쓰고 가족과 함께 공포에 떨 때에 떠올랐던 테마를 사용한 것이다. 제2악장 '수난(受難)'은 북한 괴뢰의 남침(1950. 6·25)과 중공군의 개입(1950.11·4)으로 인한 민족수난의 기록이다. 제3악장 '통곡(痛哭)'은 전몰용사들에게 바치는 추도의 노래이다. 제4악장 '환희(歡喜)'는 조국 재건과 정부 수립 10주년(1958. 8·15)을 기념하는 환희의 송가이다.

제1악장은 자유로운 소나타형식으로, 제2악장은 복합 3부분형식으로, 제3악장은 주제와 변주곡으로, 제4악장은 론도 소나타형식으로 되어 있고, 악기편성은 3관 편성이며 특수악기로는 잉글리쉬 혼, 엘토 색소폰, 새납, 장고, 북, 징, 제금, 종 등이 사용된다. (28분)

작품 해설 1

「Korean War」라는 표제가 있는 이 「Symphony No.1」은 전4악장으로 구성되었고, 각 악장들은 「여명」, 「수난」, 「통곡」, 「환희」의 표제가 붙어 있다.

특히 제4악장(환희)에는 「새납」과 「장구」 등 우리 고유악기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악의 현대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작품에서는 복조(Bitonality)가 쓰였는데 가령 4악장과 같은 부분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악보 A]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ree instruments: Violin (Vla.), Viola (Vc.), and Double Bass (D. B.). The score is written in 2/4 time and features bitonality. The Violin part starts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with a 'B:' marking below the staff. The Viola part starts with a bass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F), with an 'F:' marking below the staff. The Double Bass part starts with a bass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F), with an 'F:' marking below the staff.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the Violin part. The overall structure shows the interaction of different tonal centers (B-flat and F) across the instruments.

위 악보는 Symphony No.1의 4악장, 19~23마디인데, Cello에 F Major의 선율이 흐르고, 동일 선율을 Vla에서 B Major로 근접모방(Stretto)되어 읊어가고 있다.

- 안일웅 「나운영의 음악작품에 반영된 작곡기법에 대한 고찰」 중에서 -

작품 해설 2

이 음악의 두드러진 특징은 병행(특히 4도병행)이고, 그 반대로 진행하는 거울진행(투영)도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나운영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3화음적 성격을 가진 제2테마는 마디45에서 민족적인 제1테마와 비교된다.

제1악장은 소나타악장형식으로, 제2악장은 제1악장의 제1테마를 변주하여 사용하고 자신이 작곡하여 전쟁 중에 널리 불린 〈통일행진곡〉(“압박과 설움에서”)의 후렴부분을 인용한다. 제3악장은 짧은 서주 후에 선율이 주도하는 가곡식이고, 제4악장은 쿵더박 리듬과 함께 반음계적으로 번져 만들어진 5음음계 선율을 등장시키고, 제1악장 제1테마가 변주된 5음음계의 짙막한 행진곡이 울린다.

- 홍정수 「한국음악 20세기 1:작곡의 시작」 중에서-

I
"DAWN" ↓

Allegro

Picc C - - - - -
Fl C - - - - -
Ob C - - - - -
E.H. C^\sharp - - - - -
C.L. C^\sharp - - - - -
E.g. C - - - - -

Allegro

Hr. C^\sharp - - - - -
in F. C^\sharp - - - - -
T.P. C^\sharp - - - - -
in Bb C - - - - -
T.B. C - - - - -
Timp C - - - - -
Dr. C - - - - -
Gong C - - - - -
Tri C - - - - -
Cym C - - - - -

Allegro

GL I C pp u n n v v v v v v
GL II C pp u n n v v v v v
Bola C pp u n n v v v v v
Cello C pp u n n v v v v v
C. Bass C pp u n n v v v v v